

[ 박물관의 도시 ]

#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차역' 길림에 있었다



길해철도 길림총역 외관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차역', '영화감독들이 사랑한 시간여행 공간' - 길림시 선영구 신생가 22호에 자리한 길해철도 길림총역 옛터가 2023년 가을 리모델링을 마치고 관광명소로 새롭게 태어났다. 1928년 동북아 최초 중국 자체 설계 철도역으로 건설된 이 건축물은 동서양 미학의 절묘한 조화로 '살아있는 근대건축박물관'으로 불린다.

하지만 보통 길림 시민들에게 길해철도 길림총역이라는 단어는 그다지 익숙하지 않다. 대신 황기툰역 혹은 길림서역이라고 하면 누구나 "아, 거기!" 하고 금방 알아챈다. 인터넷 검색창에 '가장 아름다운 기차역'이라는 검색어가 뜬다.

길해철도 길림총역에 '중국에서 가장 문화적인 기차역', '가장 아름다운 기차역' 등 미명이 붙은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첫째, 길해철도 길림총역은 동서양의 건축 풍격이 잘 어우러진 건물로서 중국 전통건축의 내용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서방 현대건축의 풍격도 내포되어 있어 우리나라 근대 건축사의 걸작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길림서역은 많은 영화감독들이 열광하는 촬영장소로서 유명한 항항 배우들인 류덕화와 오찬연이 주연한 영화 《봉화가인》(烽火佳人)의 촬영지이다. 또 영화 《소년아호》(少年阿虎)에서 동북삼성의 한 기차역으로 나왔다.

한국 유명 배우 장동건과 일본 유명 배우 나카무라 도오루(仲村亨)가 주연한 한국 영화 《2009 잃어버



길림총역 대합실

린 기억》(2009 失去的记忆)도 이 역을 외경지로 채택해 1909년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할 때의 활빈 기차역으로 묘사되었다.

2023년 가을, 길해철도 길림총역 옛터가 수선을 거쳐 정식으로 대외에 개방되었다.

길해철도 길림총역은 1928년에 건설되기 시작하였는데 동북에서 처음으로 중국인이 자체로 건설한 기차역이다.

길해철도 길림총역의 부지면적은 897평방미터이고 역사 주체는 벽돌과 돌 구조이다. 전체 조형은 수사자가 엮드려있는 것과 흡사하며 꼬리부분은 높이가 29미터 되는 종탑으로 교묘하게 설계되었다.

탑내에는 라선형 목제 계단이 있어 탑꼭대기에 올라 사방을 내려다

볼 수 있다.

옛 역사 안은 전시구역과 체험구역으로 나뉜다.

전시구역은 주로 길해철도 길림총역 및 길해철도의 건설 로정을 전시하고 체험구역은 관광객들로 하여금 백년전으로 되돌아가 20세기 20~30년대 기차역의 진실한 장면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한다.

이 밖에 이곳에는 풍부한 문화창의제품이 있고 커피, 양식 및 촬영 씨비스도 제공해 관광객들에게 풍부하고 다채로운 체험을 안겨준다.

길해철도 길림총역 역사전시관은 길해철도 길림총역의 역사 사진, 문물과 관련 자료를 전시하여 시민들이 길해철도 길림총역의 발전 과정과 중요한 사건을 리해할 수 있도록 했다.

기차역 대합실 오른쪽에는 또 1929 사진관이 있다. 현재 사진관은 중국 전통복식, 우산, 트렁크 등 옛 물건들을 진열해놓고 대여하며 사진도 찍어주는 등 과거로의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관에 들어선 뒤 나무로 만든 오래된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역사 2층이 나오는데 이곳은 당시의 생활 공간을 그대로 보여준다.

길해철도 길림총역은 이런 특유의 역사, 문화적 가치가 있어 국내외 많은 영화제작팀들이 촬영장소로 삼게 되었다.

길해철도 길림총역은 역사가 유구하고 량면적이면서도 웅장한 기제가 있는 역으로 중국 철도의 과거와 현 중국 철도업계의 천지개벽의 변화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길해철도 길림총역 참관시간은 매일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까지이며 시내버스를 리용할 경우 길림기차역 앞 시내버스 터미널에서 7번 버스를 타고 황기로역에서 하차하면 된다. 또는 46번 버스를 타고 황기로역에서 하차해서 500미터가량 보행하면 도착한다.



길림총역 옛 사무실 복원

## 길림지역

### 융합미디어대외선전련맹 정식 출범

3월 19일, 길림지역 융합미디어대외선전련맹 출범 회의 및 국제전파업무 특별교육이 길림시 방송문화광장에서 개최되었다.

련맹 출범은 자원 공유, 콘텐츠 대외선전 협력 플랫폼을 함께 만들어 정품을 창조하고 특색을 드러내며 목소리를 키워 세계에 중화 문명의 '천가지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길림 진흥 발전의 시대적 강음 전파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길림시당위 선전부, 길림시융합미디어센터, 길림시대외선전센터에서 공동 주최했다.

행사는 당중앙 20기 3차 전원회의에서 제기한 '보다 효과적인 국제전파체계 구축' 요구를 깊이 있게 관철하고 전 시 대외선전 자원을 통합하며 협력하여 전방위적, 다층적, 폭넓은 국제전파체계를 다그쳐 구축하고 대외선전 업무자의 업무 능력과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함으로써 강성의 매력을 전방위적으로 해외에 전파하고 세계에 융합적이고 진실된 길림시를 보여 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련맹 출범식후, 국제전파업무 특별교육이 개최되었다. 중국일보사 신미디어센터 콘텐츠기획 편집장 라유가 현장에서 강의를 진행했다. 그는 '지방 대외선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외 소셜미디어 운영 실천경험 공유'를 주제로 해외 소셜미디어의 최신 발전 동향을 상세히 소개하고 개성화된 해외 계정을 만들어 대외선전 효과를 제고하는 전략과 기술을 공유하면서 참가자들과 상호 교류하고 의문을 해결하는 등 새로운 사고와 새로운 방법을 제공했다.

길림시대외선전센터는 지난해 12월 23일에 출범한 전 성 최초 시(주)급 국제전파기관이다. 현재 길림시대외선전센터는 이미 해외 소셜 플랫폼에 기관 계정 '영상 길림시', '길림시 맥동'과 공식 공중계정 'JILIN CITY'를 등록 개통했다.

길림시 당위 선전부, 인터넷정보판공실, 길림시문화라디오텔레비전방송및관광국, 융합미디어센터, 각 현(시) 선전부와 융합미디어센터 관계자 약 400명이 련맹 출범 회의와 특별교육에 참가했다.

/ 송화강넷

## 화전경제개발구

### '성공적인 출발' 위해 프로젝트 건설 총력전

길림성 화전경제개발구가 2025년 1분기 성공적인 출발을 위해 프로젝트 건설 총력전에 돌입했다.

3가지 프로젝트의 조기 계획, 조기 착공, 조기 완공 추진, 인프라 구축, 고정자산 통계관리 등 핵심 과제에 집중하며 시기적절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기 프로젝트 준비 가속화를 위해 화전경제개발구는 2025년 첫 근무일에 투자유치 결의대회를 개최, '전문팀 프로젝트 기획, 격상된 자원의 실행' 시스템을 통해 업무 목표를 세분화했다. 프로젝트 진행 차트를 수립하고 핵심요소 보장 리스트를 작성해 전 과정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직원 아이디어 수집, 전문가 분석, 협의의 심사 등을 통해 2025년 중점 프로젝트 13개를 선정, 이중 3개를 '3조 프로젝트'로 지정했다. 특히 연간 10만톤 규모의 자작나무수액산업단지의 3월말 착공을 목표로 관련 허가 절차를 촉진 중이다.

문제 해결 기제를 가동하고 '주간 문제 해결 협의회'를 정례화해 장애 요인 신속 처리가 가능한 폐쇄형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장경룡(長庚龍)생물식품가공단지 부지 매입 및 농지 전용 문제 해결을 위해 설계사와 건설사와의 협의, 용적률 미달 문제를 해결했다.

맞춤형 행정 지원을 강화했다. 발전개혁위원회, 자연자원국 등과 협력해 5만톤 정백산 야생 후두유 단배육(2단계) 프로젝트의 부지계획허가, 공사계획허가, 시공도 검토 등 행정 절차를 30% 이상 단축시키는 성과를 냈다. 기업 지원을 위한 '령거리 서비스'를 실천하며 투자환경 개선에도 주력하고 있다.

개발구 관계자는 "전략적 프로젝트에 대한 집중 육성을 통해 지역 경제성장의 새 동력을 창출하겠다."며 1분기 목표 달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 길림일보

## 서란시, 봄같이 준비 작업 착실히

지금은 봄같이 준비의 중요한 시기이다. 서란시는 일찍 계획하고 일찍 포치하며 일찍 가동하는 등 봄같이 준비 열풍을 전면적으로 일으켜 올해 량곡 풍작을 확보하기 위해 좋은 국면을 열었다.

올해 서란시 량곡 재배면적은 215만 5,000무로 예상된다. 서란시는 병, 옥수수, 콩 재배 지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재배 구조를 통일적으로 조정하여 경작지 자원의 고효율 리용을 확보하게 된다.

재배면적을 확정하는 동시에 43개 량질의 농작물 품종을 정선하여 보급하고 옥수수, 콩 재배에서 띠모양의 복합 재배기술을 혁신적으로 실시하며 식량과 식용유 작물의 단위당 생산량 향상 전방행동을 가동하여 년간 량곡 총생산량이 22억근에 달하도록 한다.

봄같이 생산물자 준비에서 서란시는 화학비료 11만여톤, 종자 4,800톤, 농약 1,500톤, 농약 700톤이 수요된다. 현재 농자재 시장은 봄같이 생산물자 비축이 충분하고 온라인 주문, 오프라인 배송의 공급 판매 경로가 원활하다. 3월말까지 농약을 제외한 나

머지 농자재가 모두 농가에 배송될 예정이다.

농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란시는 농업농촌, 공간, 시장 감독관리 부문으로 구성된 겨울과 봄철 종자시장 가짜상품 단속 행동 전문반을 설립하고 농업 관련 사기 합정과 농업을 해치는 각종 행위를 엄격히 조사하고 엄단했다.

이 밖에 서란시는 '당건설 선도(党建引领) + 농업기술 봉사' 모식을 구축하여 앞당겨 '출동행동' 전반 과정을 지도했다. 재배, 경작, 경영 등 기술일군을 조직하여 유기비료, 토지측량 배합, 보호성 경작, 토지이전 규모 경영을 둘러싸고 18개 농업 관련 향진과 가두에 심입하여 훈련을 전개하고 규모 경영주체 850가구를 집중적으로 지도했다.

4월까지 농업농촌부문은 또 벼고품질 육묘, 한전의 보호성 경작을 둘러싸고 온라인 수업 질의응답과 오프라인 현지 기술지도를 전개하여 봄같이생산에 '과학기술 날개'를 달아줄 방침이다.

/ 길림일보

## 룡담구 중소학교, 매일 체육수업으로 학생 체력 증진



오전 10시, 룡담구제2 실험소학교 운동장에서 5학년 학생들이 기차 탄넬 통과 놀이로 몸을 뻗뻗 늘리고 있다. 두 손으로 앞 친구 어깨를 잡은 채 줄지어 달리며 웃음꽃을 피우는 모습이 화창한 봄날씨와 어울린다.

'1일 1체육수업'을 전면 시행하면서 룡담구교육국은 올해초부터 구내 중소학교에 대한 매일 1시간 체육수업 의무화를 확실했다. 오전과 오후 각각 30분 대형 휴식시간 체육활동을 포함, 하루 최소 115분 운동을 보장하는 셈이다. 특히 기존 10분이던 휴식시간을 15분으로 연장해 교실 밖 활동을 독려중이다.

전통놀이에서 현대스포츠까지 20여종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각

학교는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에 줄넘기, 제기차기, 모래주머니 던지기, 바드민턴 등 전통놀이부터 스트레칭, 무술, 검술체조까지 다채로운 활동을 운영 중이다.

제2 실험소학교의 체육교사 장평은 "방과후엔 테니스와 축구 동아리까지 개설해 체육활동 참여율을 95%까지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

이젠 운동장이 교실보다 인기가. 5학년 리명학생은 "휴식시간마다 친구들과 모래주머니 대결을 하느라 교실에 있을 틈이 없다."며 웃었다.

학교측은 최근 운동기구 대여 서비스와 안전요원 배치를 강화하는 등 시설 개선에도 나섰다.

/ 송화강넷